

2019년 9월 2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 / 제공일: 9월 24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진

-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9월 23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 농장(400두)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, 9월 24일 오후 7시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(이하 “ASF”)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.

* 국내 ASF 확진 : 총 5건(금일 2, 既 발생 3)

- 1) 9.16일 신고 -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(9.17일 확진)
- 2) 9.17일 신고 -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(9.18일 확진)
- 3) 9.23일 신고 -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(9.23일 확진)
- 4) 9.23일 신고 -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(9.24일 확진)
- 5) 9.23일 예찰 -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(9.24일 확진)

-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심 농가로 확인하고,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,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,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,
- 금번 ASF 확진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,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 해당 농장 인근 3km에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-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,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: (국번없이) 1588-9060 / 4060

- 아울러, 여러 방역상황과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·인천·강원 지역 전체로 확대해 집중 관리한다.